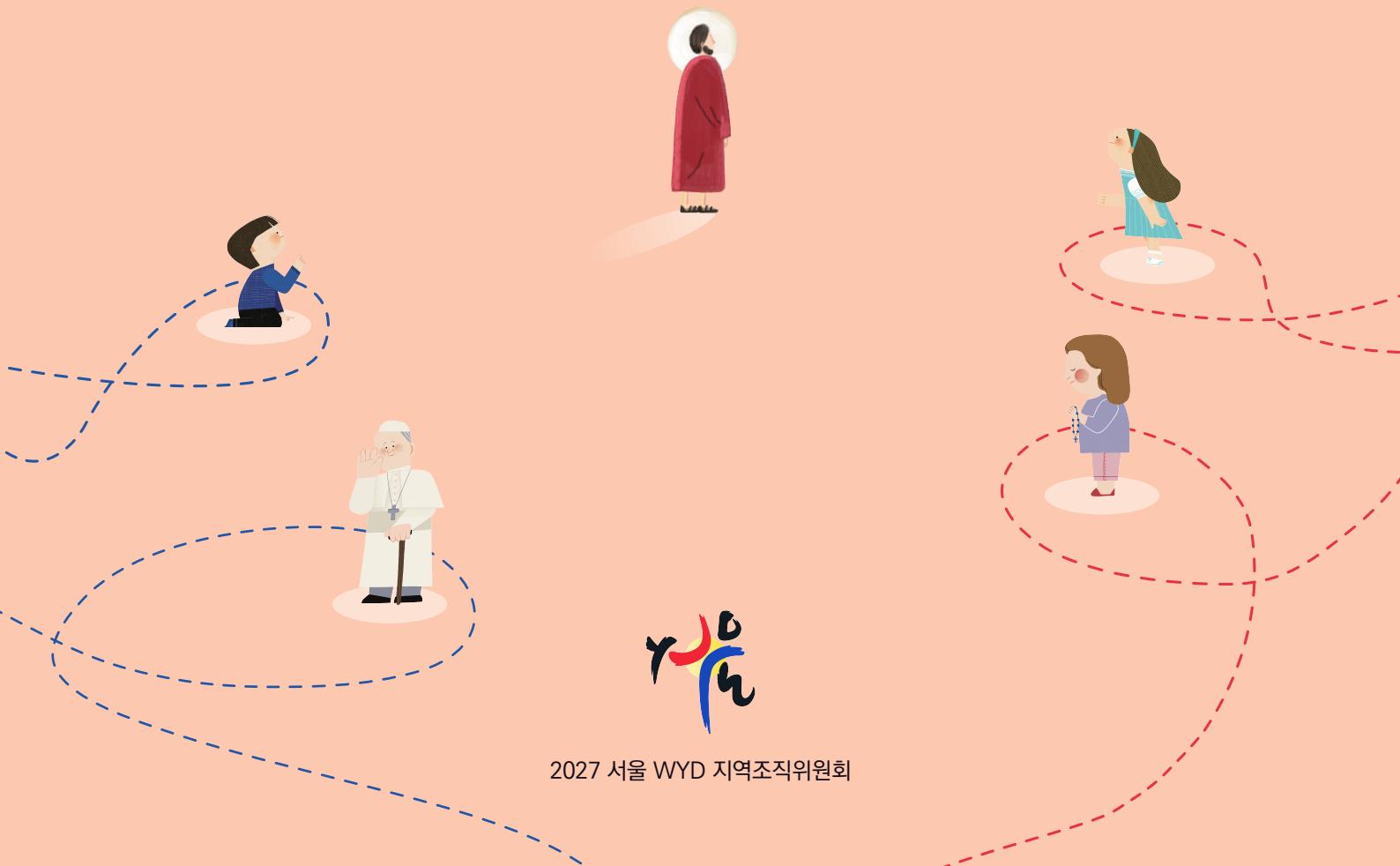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가자! 갈릴래아로!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마태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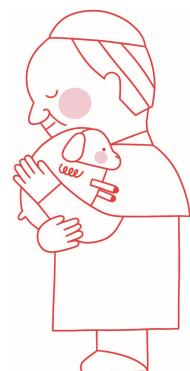
우리는 그동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과 우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하여, 교황님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사랑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기도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천사를 보내시어 제자들에게 당신이 먼저 ‘갈릴래아’로 가 계실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갈릴래아로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갈릴래아는 바로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각자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 그들과 맺는 다양한 사랑의 체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의 마지막 결실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써 보아요

그동안 주님 안에 하나 되어 공동체와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기록한 워크북을 다시 열어 봅시다. 이 여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 봅시다.





생각해 보아요

-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말씀을 주제 성구로 선포하셨습니다.
 - 이제는 WYD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교황님께서 WYD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울러 이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이 여정을 함께한 공동체원 모두에게 감사 편지일명 ‘롤링 페이퍼’를 전해 봅시다. 편지지 맨 위에 본인의 이름을 쓴 후 옆 사람에게 건네고, 편지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감사한 마음을 적습니다. 모두 작성이 끝나면 워크북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에 [@wydseoul2027](#)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2027 서울 WYD’ 순례는, 젊은이들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오늘날 세계 청년들이 마주한 새로운 형태의 고통과 불의를 성찰하고 나누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청년들 역시 이 축제를 통해 세계 젊은이들의 고민과 열정을 나누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WYD 순례자들은 자신이 깨닫게 된 복음의 기쁨을 각자의 삶에서 담대히 실천하는 ‘용기 가득한 선교사’로 세상에 파견될 것입니다. 온 교회는 이 기간을 함께하면서 젊은이들이 나누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보여 주는 새로운 열정을 배우며, 그들과 함께 역동적인 신앙 고백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젊은이와 신앙인들과 함께, 세계의 젊은이가 교회의 지체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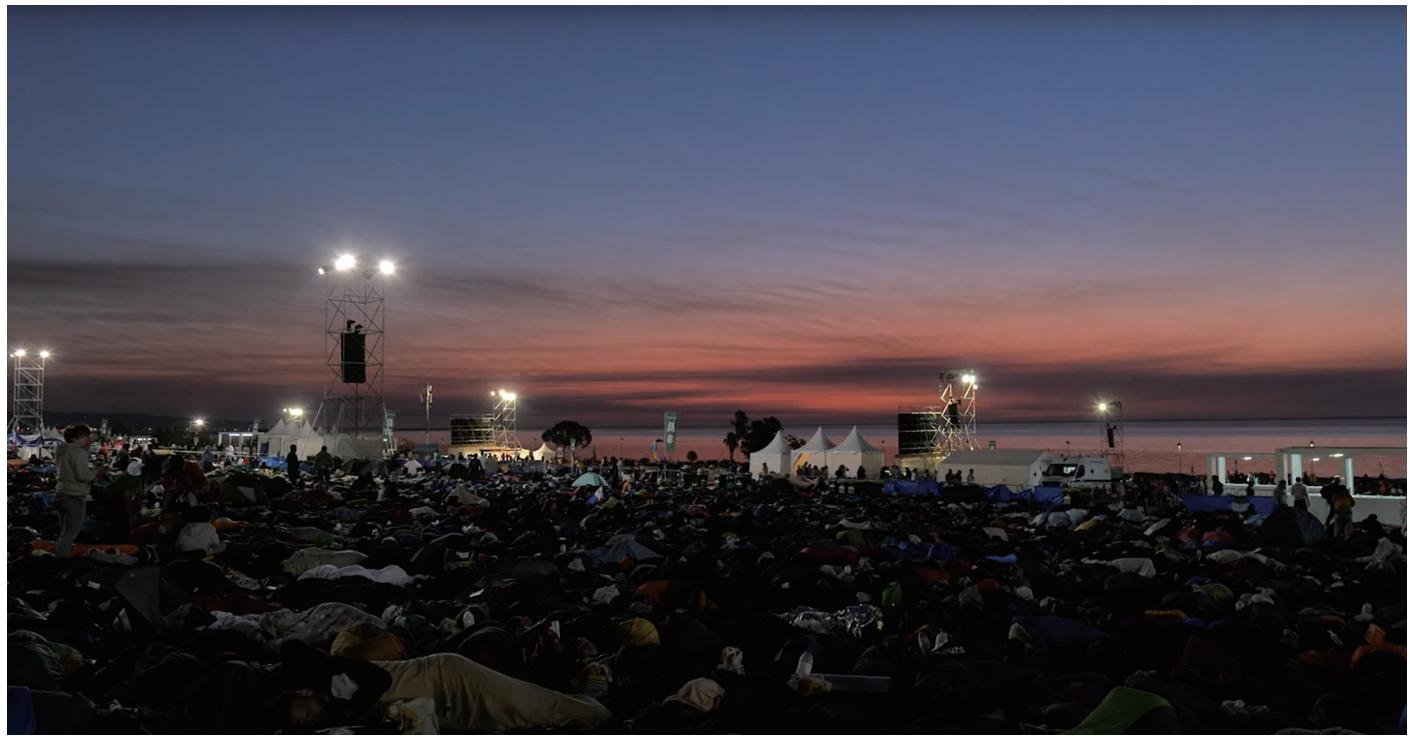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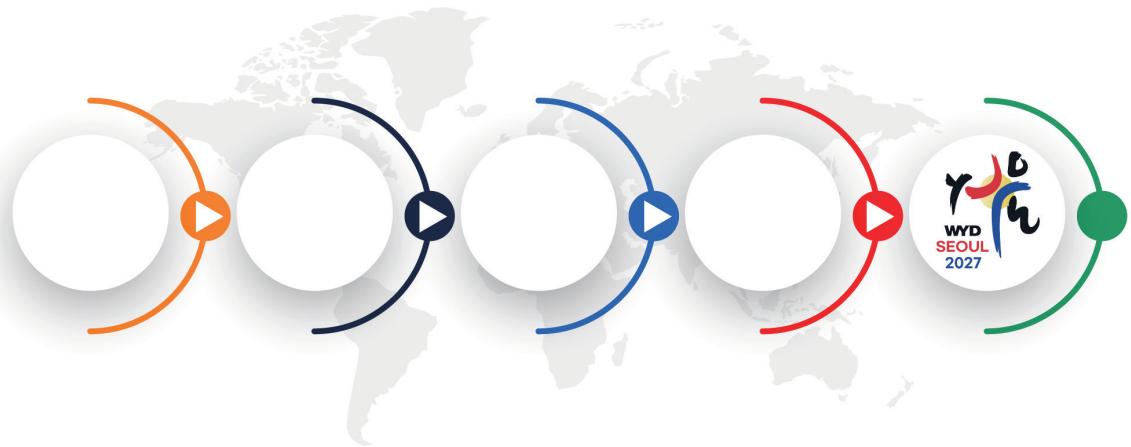
정순택 대주교, ‘2027 서울 WYD’ 주제 성구 발표 기자회견 중

여정을 마치며 하느님께 청하는 나의 기도



2027 서울 WYD를 향한 나의 여정

준비 단계부터 WYD까지 참여했던 나의 여정을 기록해 봅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